

이호범의
수시논술

하다[論]

수시논술[하다] 논술의 기초 공개 특강



모두의 합격을 바라며 초심자를 위한 기초 과정 특강

Nomad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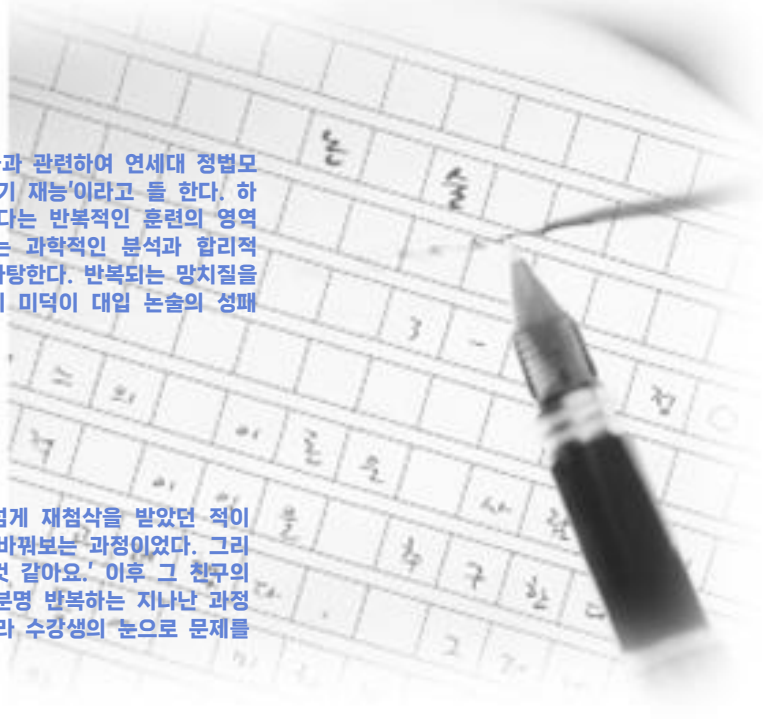
;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현대 철학에서 사용하곤 한다. 분명한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유를 논증적인 글쓰기를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대입 논술 시험 준비의 기본 자세로 삼을만 하다. "수시논술[하다]"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수업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고, 늘 새로운 사유를 모색하기를 바란다.

Hephaistos

;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장장이 신이다. 논술과 관련하여 연세대 정범모 교수의 비유를 차용한다. 흔히들 논술에 대해 '글쓰기 재능'이라고 들 한다. 하지만 논리적 글쓰기는 오히려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훈련의 영역이다. 논리적 글쓰기는 문학적인 상상과 창안보다는 과학적인 분석과 합리적 증명의 체계를 요구한다. 논리적 창의성은 여기에 바탕한다. 반복되는 망치질을 통해 세상에 돌도 없는 쇠를 만들어내는 대장장이의 미덕이 대입 논술의 성패를 가능한다.

그리고 自得

; 어느 해 수강생 중 하나가 같은 문제로 7번을 넘게 재점삭을 받았던 적이 있다. 무지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여러모로 바꿔보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말했다. '아..선생님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요.' 이후 그 친구의 답안의 수준이 놀라보게 달라졌다. Hephaistos. 분명 반복하는 지난난 과정은 수고스럽다. 하지만 그 수고가 강사의 눈이 아니라 수강생의 눈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이뤄준다.



학교/학원

이름



이호범T 수시 논술 [하다] 공개 특강 **논술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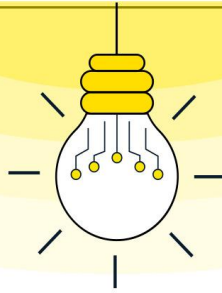
[이호범 선생님]

-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 현)대치 논증과추론 인문논술 팀장
- 현)강남 대성학원 인문논술 강사
- 현)대치 두각학원 인문논술 강사
- 현)오목 미래탐구 인문논술 강사
- 현)목동 미래탐구 인문논술 강사
- 현)목동 사과나무 인문논술 강사
- 현)성북 미래탐구 인문논술 강사
- 현)송도 에임학원 인문논술 강사
- 전)대치 유레카 인문논술 강사
- 전)대치 유레카 입시연구소장
- 전)대치 예섬학원 인문논술 강사
- 전)대치 예섬학원 논구술연구소장

[출강학원]

대치 논증과추론	대치 두각학원
강남 대성학원	목동 미래탐구
목동 사과나무	오목 미래탐구
성북 미래탐구	송도 에임학원

[상담문의] Email : anthlee@hanmail.net



들어가며

이호범T 수시 논술 [하다]

입시[하다]

복습[하다]

맞춤[하다]

선배들이 인정한 레전드 명품논술

수시/논술/합격

수시논술[하다]

합격의 DNA 연간 커리큘럼

시즌 1 기본과정

논술의 기초 이해하기
논술 출제의도 이해하기
논술 채점기준 이해하기



시즌 2 실력과정

대표 유형 학습 과정
유형별 답안작성법 학습



시즌 3 실전과정

실전 모의 논술 과정
평가 시스템
논술 지표 산출



시즌 4 실전과정

대학별 파이널 과정
수시 1차 파이널
세미 파이널
수시 2차 파이널

합격의 마지막 퍼즐! 파이널 시즌

수시 1차 파이널
연세대, 홍익대 등 수능 전

세미 파이널
성대, 서강대, 경희대 등 수능 직후 대학

수시 2차 파이널
수능 후 대학별 파이널

수시논술[하다]

합격하는 수시 논술 [하다] 수업 안내

#1교시



논술 개념 및 답안작성법

복습강의 / 반복학습

#2교시



학습단계별 실전 쓰기

개별 첨삭 / 맞춤 과제 / 피드백지도

#3교시



해설강의

시험경험과 일치하는 수업순서
수업순서와 밀착된 강의노트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특별한 해제집

논술문제 풀이순서



2024년 정규반

이호범T 논술[하다]

이호범T 수시논술[하다] 정규시간표

수업캠퍼스	수업 시간	상담 및 문의
논증과 추론 (대치미래탐구)	금요일 18:00 ~ 22:00	02-554-0161
	토요일 13:30 ~ 17:30	
	토요일 18:00 ~ 22:00	
성북미래탐구	월요일 18:00 ~ 22:00	02-929-9233
	목요일 18:00 ~ 22:00	
목동미래탐구 (광장캠퍼스)	화요일 18:00 ~ 22:00	02-2654-5009
목동미래탐구 (오목캠퍼스)	일요일 09:00 ~ 13:00	02-2061-8500

2024 시행

전국 모의고사 일정

3월 모의고사

3월 28일 목요일
서울교육청

5월 모의고사

5월 8일 수요일
경기교육청

6월 모의고사

6월 4일 화요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7월 모의고사

7월 11일 목요일
인천교육청

9월 모의고사

9월 4일 수요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9월 수시원서

수시원서
접수기간

10월 모의고사

10월15일
화요일
서울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14일
목요일
(12월16일 성적통지)

1. 논술 전형의 이해

1) 논술 경쟁률 이해하기 –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의 중요성

선배들이 인정한 레전드 명품논술

수시/논술/합격

극강의 경쟁률? 실질경쟁률??현실경쟁률???

	형식경쟁률	실질경쟁률	최저충족률	최저학력기준	24 경쟁률
연세대 경영	75.86	75.86	-	없음	87.10
한양대 경영	77.2	77.2	-	없음	83.78
서강대 경영	80.56	19.63	19%	국, 수, 영, 탐(1) 3개 합 7등급 이내	100.53
중앙대 경영	58.6	13.61	17.5%	국, 수, 영, 사/과(1), 3개 합 6등급 이내	62.15
경희대 경영	92.8	36.0	46.4%	국, 수, 영, 탐(1) 2개 합 5등급 이내	104.77
한국외대 경영	64.7	22.2	30.3%	국, 수, 영, 탐(1) 2개 합 4등급 이내	68.16
동국대 경영	63.39	13.39	33%	국, 수, 영, 탐(1) 2개 합 5등급 이내	73.83

2) 2025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확인하기 – p

3) 합리적 원서 쓰기 - 객관적 논술 지표를 바탕으로



2. 논술 시험의 이해

1) 합격 답안의 조건

내용 --- 지식(적 이해의 깊이)?

형식 --- 구조, 체계의 논리성

2) 논증문의 조건

① 연역적 증명 --- 첫 문장 중요!!!

② 추상적 개념 ← 구체적 부연 : 단문 중심의 간결한 문장

3. 논술 시험의 실재

주요 대학 기출 문제 엿보기

[연세대학교_기출문항]

[문제 1-1]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아래 [지문 A]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1]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제시문 (라)의 두 국가는 2021년 초부터 2030년 말까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학문연구와 응용기술연구를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a_t 와 b_t 는 각각 국가 A와 국가 B가 t 년에 응용기술연구지원비로 지출할 액수(단위: 억 원)를 수열로 나타낸 것이다.

$$a_t = 0.002(t - 2020)^3 - 0.75(t - 2020)^2 + 13(t - 2020) + 40$$

$$b_t = -0.005(t - 2020)^3 + 0.45(t - 2020)^2 - 3(t - 2020) + 40$$

여기서 t 는 2020보다 크고 2031보다 작은 수이다. 기초학문연구에는 매해 각각 $100 - a_t$ 와 $100 - b_t$ (단위: 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1) 각 국가의 2021년 초부터 2030년 말까지 10년간의 응용기술연구지원비를 계산하시오.

2)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2030년 말 각 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여 서술하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25점)

[고려대학교_모의논술]

[문제 1] 위의 글 ①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앞면에 700자±50자로 작성)

[문제 2] 위의 글 ①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에 나타난 '신(臣)'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성균관대학교_기출문항]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문제 2] <보기>를 읽고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관계법령 개정 전후 변화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40점)

[문제 3] 한 설치미술가가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 등을 활용한 작품을 국내 유명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예술가들은 이 작품의 전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 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4. 대표 유형별 답안 작성법

[대입 논술 대표 유형]

- 1) 비교 유형
- 2) 적용 설명 유형
- 3) 적용 평가 유형
- 4) 자기 견해 유형(대안제시형)

[비교 유형 답안 작성법]

[기본형]

[답안 작성법]

[적용 설명 유형 답안 작성법]

[기본형]

[답안 작성법]

[자기 견해 유형 답안 작성법]

[기본형]

[답안 작성법]

5. 논술 문제 풀이의 실재

논술문제 풀이순서



학 습 논 제

논제 분석을 통한 기초 문단 개요 작성 연습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다음 표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가상적 결과이다. 총 200명의 피험자는 무작위로 100명씩 나뉘어 상황 1과 상황 2에 배정되었으며 각 상황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황 1은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선택이고, 상황 2는 손실을 줄이려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선택이다. 상황 1의 경우, 선택 A의 기대 이익은 1만 1천 원으로 B를 선택할 경우 얻는 1만 원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80명은 B를 선택하였다. 상황 2의 경우, 선택 A의 기대 손실은 1만 1천 원으로 B를 선택할 경우 잃게 되는 1만 원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75명은 A를 선택하였다.

상황 1		상황 2		총 사람수(명)
선택	사람수 (명)	선택	사람수 (명)	
A : 10% 확률로 11만원을 얻는다.	20	A : 10% 확률로 11만원을 잃는다.	75	
B : 100% 확률로 1만원을 얻는다.	80	B : 100% 확률로 1만원을 잃는다.	25	
합계	100	합계	100	200

* 상황 1에서 선택 A의 기대이익은 이익금 11만원 x 10% 확률 = 1만 1천 원으로 계산.

** 상황 2에서 선택 A의 기대손실은 손실금 11만원 x 10% 확률 = 1만 1천 원으로 계산.

제시문 (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는 복잡한 배경과 계산, 전략이 깔려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중국의 주요 지역들을 장악하고 연합국의 대중국 보급로를 봉쇄하였다. 당시 태평양과 중국에 진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던 미국과 유럽 열강들은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증대시키고 일본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맞섰다. 한편 1940년에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관계를 수립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수뇌부는 1940년 가을 중국 총통과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된 이래 중국과의 전쟁만큼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유럽 열강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에게 큰 위협이자 장애였다.

1941년 7월 미국은 자국 내의 일본인 재산을 동결했고 극동군 사령부를 창설했다. 영국과 영국의 자치령들도 일본과의 교역을 중단했다. 네덜란드의 인도 식민지 역시 일본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에 동참했다. 각국의 원산지로부터 주식, 천연고무, 원유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원자재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에게 있어 이는 큰 타격이었다. 이 무렵 일본은 원유 보유량이 고갈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일본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즉, 일본은 미국에 정치적인 방식으로 항복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수단으로 동남아시아의 원자재 공급원을 강점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1941년 11월 말 미국은 중국문제와 관련해 ‘10개항 강령’을 제시했는데, 이는 일본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화해 조건들을 담고 있었다.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은 미국과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자신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만일 일본이 전쟁이라는 대안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지위는 더욱 강고해지고 일본은 그 영향력 아래 복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에 대한 공격은 커다란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이었다. 당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은 실질적인 군사동

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게다가 이 네 국가는 소련과도 유사한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미국 공격은 다섯 개 강대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만일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자기들이 초반에 승리할 확률이 70~80% 정도라고 보았다.

미국과 장기전을 벌일 수는 없지만, 전쟁 초반에 큰 타격을 입히고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제시문 (다)

갑과 을은 산에서 나는 야생약초를 캐어 팔아 생활을 꾸렸다. 어느 날 갑이 으스스대며 을에게 말했다. “자네는 좋은 약초를 어디서 캐야 할지를 모르는가?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은 낮은 가까운 산에는 희귀한 약초가 없다네. 나도 전에는 하루 종일 죽도록 힘을 들여 산을 뒤졌지만 귀한 약초는 캐지 못했지. 그래서 가까운 산을 훑는 일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높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네. 처음에 깊은 산 속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고 낭떠러지에 맞닥뜨리거나 벼랑을 탈 때는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 하지만 얼마 지나자 숲속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한 달 뒤에는 나무와 풀들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는 거기서 값나가는 약초들을 여러 번 발견했고 영지나 상황 같은 희귀한 버섯을 켤 적도 있다네. 비록 허탕을 치는 날도 없지는 않지만 분명 내가 자네보다 별이가 나을 걸세. 언젠가는 산삼을 캐는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이 말을 들은 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만 두게나. 나는 자네 말을 따르지 않겠네. 내가 값비싼 약초를 캐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그러나 나는 조금도 불만스럽지 않다네. 사람들은 희귀한 약초를 캐고 싶어 하지만 희귀한 약초란 위험이 도사린 높은 곳에 있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사람의 애를 태우지. 나는 저녁 무렵에 자네가 빈 바구니로 산을 내려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네. 낮은 산에는 희귀한 약초는 없다고 하더라도 야생도라지나 당귀, 구절초 같은 평범한 약초들

이 얼마든지 많다네. 나는 이런 약초들의 군락지를 제법 여러 곳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빈손으로 산을 내려 온 적이 없다네. 상황버섯이 당귀보다 훨씬 비싼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깊숙이 숨어 있는 그것들을 찾아 산을 헤매고 벼랑을 타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네.”

제시문 (라)

염상진은 또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감았다.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의 생명이 달린 사건이었다. 그들은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자신에게 특별한 변호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을 살려낼 만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휴전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것일까? 그들에겐 휴전이 곧 죽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그들의 의지는 고작 그런 식으로 가변적이었을까? 그러면서도 무엇하러 입산을 했던 것일까? 일시적인 피신이었을까? 그럼 왜 작년 말에 실시한 하산 권유를 듣지 않았던 것일까? 저들의 감정적인 초기보복 때문에 산이 더 안전하다는 기회주의적 판단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고생을 하다 보니 의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휴전 소식을 듣게 되자 완전히 변해버린 것일까?

그들은 배울 만큼 배웠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도 할 수 없었을까? 자의로 바른 역사를 선택했다면서도 그렇게 역사에 대한 신뢰가 빈약할 수 있을까? 목숨 때문이라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역사의 편에 선 자가 목숨을 변명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치졸이고 비겁이다. 애초에 역사의 선택은 목숨의 위협을 뛰어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된다. 목숨을 아까워하는 자가 어찌 혁명에 나설 수 있으며,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투쟁에 뛰어들 수 있는가! 피 흘리기를 주저하고, 목숨 버리기를 무서워하면서 혁명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역사를 선택했다면 그런 자들은 반동보다 더 악랄한 적이다! 혁명은 대가를 예약해주지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혁명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고, 과정이며 혁명에 가담하는 자는 그 연료로써 타오르기를 각오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혁명에서 대가를 바랄 때 목숨에 연연하게 되고, 목숨에 연연하면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기회주의가 짝트게 된다. 탈주를 감행한 그 두 사람은 결국 목숨에 연연한 자들이었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일본의 선택과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을'의 선택을 설명하시오.(8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염상진의 사고방식과 대비하여 제시문 (나)와 (다)
에 나타난 일본과 '을'의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의 입장에서 다른 사고방식의 한계를 논하시오.(1,000자 내
외)

Note

강 의 노트

[논제 분석] - [제시문 이해] - [개요 구상]

[논제 분석 - 기초 문단 개요를 작성한다 - 기초 문단 개요의 필수 구성 요소]

-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할 것인가?
- 각 문단의 분량은 몇 자(정도)로 할 것인가?
- 각 문단의 핵심 문장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문제 1] 제시문 (가)의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일본의 선택과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을'의 선택을 설명하시오.(800자 내외)

1) 논제 요구 사항 파악하기

- ① (가)의 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 ② (나)의 일본의 선택과 (다) 을의 선택을 설명하시오
- ③ 800자 내외

Note

2) 기초 문단 개요 작성

1문단 기초개념(결과) 200자	제시문 (가)의 실험 결과는 [A]를 말해주고 있다.
2문단 기초개념(수치근거) 200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근거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문단 대상사례(비교) 200자	A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와 (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일본의 선택은 [B]에 해당한다.
4문단 대상사례(비교) 200자	이와 달리 (다) 을의 선택은 [C]에 해당한다.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염상진의 사고방식과 대비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일본과 '을'의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의 입장에서 다른 사고방식의 한계를 논하시오. (1,000자 내외)

1) 논제 요구 사항 파악하기

- ① (라) 염상진의 사고방식 vs (일본과 을)의 사고방식 비교
- ②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의 입장에서
- ③ 다른 사고방식의 한계를 논하시오
- ④ 1,000자 내외

Note

2) 기초 문단 개요 작성

1문단 염상진의 사고방식 200자	제시문들은 공통적으로 사고방식이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라)의 염상진의 사고방식은 [A]이다.
2문단 일본/을의 사고방식 200자	이와 달리 일본과 을의 사고방식은 [B]이다.
3문단 타당성 논증 300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A(또는 B) 사고방식이 타당하다.
4문단 비판 논증(한계) 300자	하지만 B(또는 A)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불러올 뿐이다.

강 의 노트

[논제 분석] - [제시문 이해] - 개요 구상

제시문 (가)

다음 표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논제분석;문제-해결책의 논리관계, '원인분석'중요, '따라서' 전후는 인과의 논리관계, ①은 원인에 해당, 원인과 문제점과 명확한 구분

실험의 가상적 결과이다. 총 200명의 피험자는 무작위로 100명씩 나뉘어 상황 1과 상황 2에 배

정되었으며 각 상황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황 1은 서로 다른 두 방식 사

이의 선택이고, 상황 2는 손실을 줄이려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선택이다. 상황 1의 경우,

선택 A의 기대 이익은 1만 1천 원으로 B를 선택할 경우 얻는 1만 원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100명 중 80명은 B를 선택하였다. 상황 2의 경우, 선택 A의 기대 손실은 1만 1천 원으로 B

를 선택할 경우 잃게 되는 1만 원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75명은 A를 선택하였

다.

상황 1		상황 2		총 사람수(명)
선택	사람수 (명)	선택	사람수 (명)	
A : 10% 확률로 11만원을 얻는다.	20	A : 10% 확률로 11만원을 잃는다.	75	
B : 100% 확률로 1만원을 얻는다.	80	B : 100% 확률로 1만원을 잃는다.	25	
합계	100	합계	100	200

* 상황 1에서 선택 A의 기대이익은 이익금 11만원 x 10% 확률 = 1만 1천 원으로 계산.

** 상황 2에서 선택 A의 기대손실은 손실금 11만원 x 10% 확률 = 1만 1천 원으로 계산.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는 가능한 모두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표 아래 부가적으로 주어진
정보라 하더라도 활용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Note

한 줄 요약

: 비합리적 선택 - 이익예상상황/손실예상상황 - 위험회피(안정)선택/위험감수(모험)선택

제시문 (가)는 1979년 *Econometrica* 47호(263-292페이지)에 실린 카너만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소개된 여러 실험들 중 하나를 변형한 것이다. 제시문의 표는 사람들이 기대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 이익을 더 내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손실을 덜 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익추구 상황(상황1)에서는 위험회피 성향을, 손실방지 상황(상황2)에서는 위험추구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상황 1에서 다수가 A대신 B를 선택한다는 것은, B에서 얻게 되는 1만원이라는 확실한 이익이 A에서 얻을 수 있는 1만 1천원이라는 불확실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이유에서, 상황 2에서는 B에서 잃게 되는 확실한 1만원이 A에서 잃을 수 있는 1만 1천원이라는 불확실한 손실보다 더 큰 손실로 느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사람들은 이익이건 손실이건 불확실한 결과보다 확실한 결과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는 복잡한 배경과 계산, 전략**이 깔려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중국의 주요 지역들을 장악하고 연합국의 대 중국 보급로를 봉쇄하였다. 당시 태평양과 중국에 진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던 미국과 유럽 열강들은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증대시키고 일본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맞섰다. 한편 1940년에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관계를 수립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수뇌부는 1940년 가을 중국 총통과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된 이래 중국과의 전쟁만큼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유럽 열강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에게 큰 위협이자 장애였다.

1941년 7월 미국은 자국 내의 일본인 재산을 동결했고 극동군 사령부를 창설했다. 영국과 영국의 자치령들도 일본과의 교역을 중단했다. 네덜란드의 인도 식민지 역시 일본에 대한 수출입 금지조치에 동참했다. 각국의 원산지로부터 주석, 천연고무, 원유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원자재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에게 있어 이는 큰 타격이었다. 이 무렵 일본은 원유 보

유량이 고갈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일본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즉, 일본은 **미국에 정치적인 방식으로 항복**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수단으로 동남아시아의 원자재 공급원을 강점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1941년 11월 말 미국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10개항 강령’을 제시했는데, 이는 일본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화해 조건들을 담고 있었다.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은 미국과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자신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만일 **일본이 전쟁이라는 대안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은 더욱 강고해지고 일본은 그 영향력 아래 복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에 대한 공격은 커다란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이었다. 당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은 실질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게다가 이 네 국가는 소련과도 유사한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미국 공격은 다섯 개 강대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만일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자기들이 초반에 승리할 확률이 70~80% 정도라고 보았다.**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지 말고, 제시문 ②에서 분석한 개념어를 통해 일본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미국과 장기전을 벌일 수는 없지만, 전쟁 초반에 큰 타격을 입히고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Note

한 줄 요약

: 일본의 선택 - 기습 전쟁 - (국민들의 희생) - 초반 승리 확률 70~80%

제시문 (나)는 안드레아스 힐그루버(Andreas Hillgruber)의 『제2차 세계대전』(1983)과 아키라 이리에(Akira Iriye)의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1987)을 참조해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진주만 기습당시 일본 수뇌부의 판단이 모험 추구적인 결정(risk-seeking decision)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힘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자신들의 입지는 계속 위축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선제공격을 통한 예방전쟁을 일으키면 승산이 매우 클 것으로 여겼다. 물론 공격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참전은 일본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 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일본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박을 벌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확실하면서도 일정한 손실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손실이 더 클 수 있지만 확률은 낮은 쪽을 선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다)

갑과 을은 산에서 나는 야생약초를 캐어 팔아 생활을 꾸렸다. 어느 날 갑이 으스대며 을에게 말했다. “자네는 **좋은 약초**를 어디서 캐야 할지를 모르는가?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은 낮은 산에는 **희귀한 약초**가 없다네. 나도 전에는 하루 종일 죽도록 힘을 들여 산을 뒤졌지만 **귀한 약초**는 캐지 못했지. 그래서 **가까운 산**을 훑는 일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높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네. 처음에 **깊은 산 속**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고 낭떠러지에 맞닥뜨리거나 벼랑을 탈 때는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 하지만 얼마 지나자 숲속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한 달 뒤에는 나무와 풀들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는 거기서 값나가는 약초들을 여러 번 발견했고 영지나 상황 같은 희귀한 버섯을 캔 적도 있다네. 비록 허탕을 치는 날도 없지는 않지만 분명 내가 자네보다 별이가 나올 걸세. 언젠가는 산삼을 캐는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이 말을 들은 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만 두게나. 나는 자네 말을 따르지 않겠네. 내가 값비싼 약초를 캐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그러나 나는 조금도 불만스럽지 않다네. 사람들은 희귀한 약초를 캐고 싶어 하지만 희귀한 약초란 위험이 도사린 높은 곳에 있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사람의 애를 태우지. 나는 저녁 무렵에 자네가 빈 바구니로 산을 내려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네. 낮은 산에는 희귀한 약초는 없다고 하더라도 야생도라지나 당귀, 구절초 같은 평범한 약초들이 얼마든지 많다네. 나는 이런 약초들의 군락지를 제법 여러 곳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빈손으로 산을 내려 온 적이 없다네.** 상황버섯이 당귀보다 훨씬 비싼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깊숙이 숨어 있는 그것들을 찾아 산을 헤매고 벼랑을 타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네.”

적용 개념 - 100% 확률 ; '한 번도 빈손으로 없다네'

Note

한 줄 요약

: 을의 선택 - 가깝고 낮은 산 - 흔한 약초 - '한 번도 빈 손으로 내려온 적 없다'

이 제시문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본 것이다. 제시문에서 '갑'과 '을'은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행동유형과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갑'은, 찾기 어렵지만 찾기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 희귀한 약초를 캐러 다닌다. 이는 확률은 낮지만 실현될 경우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을'은, 값이 높지는 않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약초를 캐러 다닌다. 이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적더라도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갑'이 모험지향적 이익추구형이라면, '을'은 안정지향적 이익추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라)

염상진은 또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감았다.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의 생명이 달린 사건이었다. **그들은**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자신에게 특별한 변호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을 살려낼 만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염상진의 사고방식 - '그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그들은 휴전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것일까? 그들에겐 휴전이 곧 죽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그들의 의지는 고작 그런 식으로 가변적이었을까?** 그러면서도 무엇하러 입산을 했던 것일까?

염상진이 '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 - 그렇다면, 염상진의 사고방식은 '의지의 가변성'과 대조적 사고방식, 이를테면 신념중심의 사고방식

일시적인 피신이었을까? 그럼 왜 작년 말에 실시한 하산 권유를 듣지 않았던 것일까? 저들의 감정적인 초기보복 때문에 산이 더 안전하다는 **기회주의적 판단**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고생을 하다 보니 의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휴전소식을 듣게 되자 **완전히 변해버린 것일까?**

그들은 배울 만큼 배웠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도 할 수 없었을까? 자의로 바른 역사를 선택했다면서도 그렇게 **역사에 대한 신뢰**가 빈약할 수 있을까? **목숨 때문이라고? 가담치**

도 않은 소리대! 역사의 편에 선 자가 목숨을 변명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치졸이고 비겁이다. 애초에 역사의 선택은 목숨의 위험을 뛰어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된다. **목숨**

을 아까워하는 자가 어찌 혁명에 나설 수 있으며,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투쟁에 뛰

어릴 수 있는가! 피 흘리기를 주저하고, 목숨 버리기를 무서워하면서 혁명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역사를 선택했다면 그런 자들은 반동보다 더 악랄한 적이다! 혁명은 대가를 예약해주지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혁명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고, 과정이며 혁명에 가담하는 자는 그 연료로써 타오르기를 각오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혁명에서 대가를 바랄 때 목숨에 연연하게 되고, 목숨에 연연하면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기회주의가 짝트게 된다. 탈주를 감행한 그 두 사람은 결국 목숨에 연연한 자들이었다.

Note

한 줄 요약

: 염상진의 사고방식 - 역사와 혁명에 대해 가변적 사고방식 비판 - 신념 중심의 사고방식

이 제시문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의 일부이다. 이 대목은 빨치산 부대를 이끌고 있는 ‘염상진’이라는 등장인물이 부대를 이탈하여 산을 내려가다가 체포된 두 사람의 재판을 앞두고 혁명에 대한 생각을 표명한 부분이다. 염상진에 따르면, “혁명은 대가를 예약해주지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혁명에 가담하는 일은 올바른 역사 발전에 대한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목숨의 위험”에 대한 고려를 “뛰어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역사 발전의 과정 그 자체에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를 바치기를 각오하는 일인 것이다. **염상진은 대가를 바라거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Note

강 의 노트

[논제 분석] - [제시문 이해] - **[개요 구상]**

[최종 개요 : 제시문 독해를 바탕으로 기초 문단 개요의 첫 문장들을 완성한다.]

-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할 것인가?
- 각 문단의 분량은 몇 자(정도)로 할 것인가?
- 각 문단의 핵심 문장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문제 1] 제시문 (가)의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일본의 선택과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을'의 선택을 설명하시오.(800자 내외)

Note

[최종 개요 작성하기]

1문단 기준개념(결과) 200자	제시문 (가)의 실험 결과는 [비합리적 선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문단 기준개념(수치근거) 200자	비합리적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근거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문단 대상사례(비교) 200자	비합리적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의 일본의 선택과 (다)의 을의 선택이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 일본의 선택은 손실 예상 상황에서의 비합리적 선택이다.
4문단 대상사례(비교) 200자	한편, 을의 선택은 이익 예상 상황에서의 비합리적 선택이다.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염상진의 사고방식과 대비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일본과 '을'의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의 입장에서 다른 사고방식의 한계를 논하시오.(1,000자 내외)

Note

[최종 개요 작성하기]

1문단 염상진의 사고방식 200자	제시문들은 공통적으로 사고방식이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라)의 염상진의 사고방식은 신념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2문단 일본/울의 사고방식 200자	이와 달리 일본과 울의 사고방식은 실리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3문단 타당성 논증 300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신념 중심의 사고방식이 타당하다.
4문단 비판 논증(한계) 300자	하지만 실리중심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합리적 선택에 타당하지 않다.

답안 사례

[문제 1]

제시문 (가)의 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일본의 선택과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을'의 선택을 설명하십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① 연역적 구성의 좋은 사례. 주어진 자료를 요약하듯 귀납적으로 나열하는 서술보다는 자료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우선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술이 논증문에 적합한 서술 방법임.

② 제시문 (가)의 상황 1과 상황 2는 상반관계의 대조적 개념과 공통된 개념을 모두 보여주는 비교대상의 관계이다.

①제시문 (가)의 실험은 비합리적 선택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제시문 (가)에서 상황 1은 ②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대이익은 적지만 위험률이 없는 B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11,000원의 기대 이익이 10,000원의 기대 이익보다 월등한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90%의 위험률을 부담하면서 A를 선택하는 것보다 100% 이익이 보장된 B를 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기대이익이 낮은 선택이라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반면 상황 2는 ②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대 손실은 크지만 위험률은 낮은 A를 선택함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11,000원의 기대손실이 10,000원의 기대손실보다 월등히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의 확률로 10,000원을 잃는 선택보다 10%의 위험률을 감수한다면 손실이 없는 A를 택하게 된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 기대 손실이 큰 선택이라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결국 실험은 이익이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위험회피

정도라는 주관적 요인으로 인해 비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 실험결과를 (나)와 (다)에 ③적용한다면 일본과 을 역시 비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의 을의 선택은 약초를 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을은 희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산에 들어가는 위험을 피하고 낮은 산에서 흔한 약초를 캐는 것을 선택했다. 을의 선택은 기대이익이 적지만 위험률이 없으며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전혀 없다**. 을은 위험률이 낮고 안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흔한 약초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을의 **위험 회피적 이고 안정지향적인 선택**은 상황 1과 대응된다. 하지만 을의 선택한 흔한 약초는 충분한 기대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와 달리 무조건 행복이나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본은 **손실에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미국에게 항복했을 경우 발생하는 100%의 손실보다 미국을 선제공격 했을 때 얻게 될 70~80%의 승리 가능성을 믿고 진주만 기습을 감행했다. 즉 **20~30%의 위험률만 감소**한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일본은 낮은 **위험 지향적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상황 2와 대응된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에게 막대한 손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③ 적용의 개념 -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서 분석, 추론한 개념을 대상이 되는 사례 제시문에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서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답안 사례

[문제 2] ①제시문 (라)에 나타난 염상진의 사고방식과 대비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일본과 '을'의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한 사고방식의 입장에서 다른 사고방식의 한계를 논하시오.(1,000자 내외)

염상진의 사고방식과 일본과 을의 사고방식은 모두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에서 염상진은 ①신념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다. 신념은 원칙과 명분을 중시한다. 염상짐에게 있어서 혁명이라는 명분은 역사 발전의 동력이며 그 자체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염상진은 혁명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부당하고 인식한다. 그래서 염상진은 목숨에 연연하여 혁명의 명분을 버린 2명의 탈주자를 나약하고 비겁한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에 (나)의 일본과 (다)의 을은 공통적으로 ①실리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실리 중시하는 사고는 객관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곤 한다. 물론 위험을 기피하는 을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일본의 선택이 상이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국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부당성과 정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념 중심

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명분에 따른 삶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자기애를 갖게 하며 자신과 사회 전체에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고는 선택의 일관됨을 보인다. 개인과 사회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선택은 상대방으로부터 믿음과 신뢰의 보상을 이끌어 낸다. 가령, 개인의 대인 관계와 국가 사회의 대내외적인 정책이 신념과 철학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 사회 경제적인 이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확실한 신뢰를 갖춘 개인과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신의 이익과 손실 여부로만 사고할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 실리만으로 사고하게 될 경우 사회의 신뢰도는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붕괴되고 이는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리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여타 동물과 같은 본능을 따르는 삶일 뿐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겁함마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명분이 없음은 곧 다른 동물과 차별화 된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의 상실이다. 일례로 자기 중심적인 실리만을 따지는 개인과 사회를 상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Note



이호범T 수시 논술 [하다] 3.1 특강 **논술의 기초**

[이호범 선생님]

-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 현)대치 논증과추론 인문논술 팀장
- 현)강남 대성학원 인문논술 강사
- 현)대치 두각학원 인문논술 강사
- 현)오목 미래탐구 인문논술 강사
- 현)목동 미래탐구 인문논술 강사
- 현)목동 사과나무 인문논술 강사
- 현)성북 미래탐구 인문논술 강사
- 현)송도 에임학원 인문논술 강사
- 전)대치 유레카 인문논술 강사
- 전)대치 유레카 입시연구소장
- 전)대치 예섬학원 인문논술 강사
- 전)대치 예섬학원 논구술연구소장



[출강학원]

대치 논증과추론	대치 두각학원
강남 대성학원	목동 미래탐구
목동 사과나무	오목 미래탐구
성북 미래탐구	송도 에임학원

[상담문의] Email : anthlee@hanmail.net

**It ain't what you don't know that gets you into trouble.
It's what you know for sure that just ain't so.
Mark Twain.**